



건·주관절 다이제스트

발행일자: 2017년 11월 25일 8호 / 발행인: 문영래 / 편집인: 김철홍, 조남수, 임태강 / 발행처: 대한건·주관절학회 홍보위원회 / 후원: 대한건·주관절학회 / 제작: 우리의학사



CONTENTS

- 01 _ 명사 초대석
- 04 _ 특집기사
- 05 _ 우리팀을 소개합니다
- 07 _ 건주관절 보험 소식
- 09 _ 건주관절 취미생활
- 12 _ 부편집장 입성기
- 14 _ 해외학회 참관기
- 16 _ 의료칼럼
- 18 _ 대한건·주관절학회 심포지움 및 학술대회
- 19 _ 회원동정
2016년도 신입회원 명단

명사 초대석

원주기독병원 윤여승

인문학 열풍에 대한 단상(斷想)

건주관절 다이제스트로 부터 원고청탁을 받았는데, 주제는 학회 창립 과정이나, 학회 비사(秘史), 선배 의사로서 후학들에게 교훈이나 귀감이 되는 경험에 대해서라는 단서가 붙었다. 그러나 그러한 주제는 이미 역대 회장님들께서 본란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 하셨고, 경험 또한 대동소이하여 중언 부언 될 염려가 있어 주제를 달리 하였다.

언제부터인가(아마도 두 즈믄해가 시작되면서 부터인 것으로 추정됨) 우리 사회에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 그 여파인지는 모르나 이제는 정형외과 학회 소식지도 귀한 지면을 할애하여 동·서양 고전에서 인용한, 삶에 도움이 되는 인문학 컬럼이 실리고 있을 정도이다. 또한 의학 교육 과정에도 의료 인류학, 의료 인문학, 의철학이니 하면서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인문학 관련 과목들이 개설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나라의 경제가 어려웠을 때에 어른들이 “철학이 밥먹여 주냐”라는 자조섞인 말을 들은 기억도 나고, 요즘을 대학 사회에서는 일부 인문학 전공 교수들이 자기 전공 분야의 폐과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터에, 정작 대학 바깥 세상에서는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으니 이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어리둥절할 뿐이다. 나름대로 열풍의 진원을 생각컨대 그것은 아마 두 가지 사건이 우리 사회에 준 영향이 크다 하겠다. 하나는 Clement 인문학(1995년 Earl Shorris라는 인물이 뉴욕시의 골치거리인 노숙자, 재소자, 마약 중독자, 빈민 등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학 수준의 인문학 교육 코스를 말하며, 후에 우리나라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꽃 피운다), 일명 “거리의 인문학”이라는 현상이 시의 적절하게 우리 사회에 긍정적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Aequalis™ Ascend Flex™
CONVERTIBLE SHOULDER SYSTEM



The Aequalis Ascend Flex convertible shoulder system provides anatomic and reversed options within a single system offering precise intra-operative implant-to-patient fit and easy conversion to reversed if necessary.

수입원
(주)에버그린메디칼 (02-3452-6000)

TORNIER 

두 번째는 세계적 초일류 기업인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DNA에는 기술뿐만 아니라 인문학이 녹아있다. 소크라테스와 한나절 보낼 수만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을 내놓겠다”라고 공언할 정도로 인문학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후이다. 그가 아이맥 발표 공식 성명에서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이자 화가인 윌리엄 블레이크를 언급하며, 자신은 아이디어가 막힐 때 마다 그의 시를 보면 새로운 영감을 떠올랐다고 하여, 인문학이 지닌 효용에 대한 세인들의 궁금증을 더욱 촉발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미국 상위 100대 기업 전문 경영인들의 80%가 학부 시절 인문 계열 전공자였다니 사람들의 귀가 솔깃할 만도하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빌 게이츠,마크 저커버그 등 내노라하는 IT 업계의 거물들이 한 목소리로 인문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고, 삼성의 모회장이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기술력 뿐만 아니라 상상력, 창조력같은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사회 전반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중요시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짐작해본다(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삼성이 뭘 한다면 그것의 장·단점을 따져 보지도 않고 잘 따라한다).

이러한 사회적 시류에 맞게 의학에도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 문·사·철(文·史·哲)로 지칭되는 인문학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여 명쾌한 답변은 힘들지만, 한마디로 인류 역사 이래로 인간이 그려온 무늬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규정하면 크게 틀리지는 않으리라. 문학은 인간을 언어적, 문학적으로 관찰, 접근하는 것이고, 역사학은 인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하여 관찰, 접근하는 것이며, 철학은 인간의 삶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함으로서 문학은 감동을,역사학은 교훈을, 철학은 삶의 의미를 우리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며 통찰의 힘을 키워준다. 즉 인문학은 인간을 위한, 인간을 중심에 두고 있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을 중심에 두는 것이라면,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학을 빼놓을 수 없다. 흔히들 의학을 과학이라는 학문의 범주에 포함 시키지만, 이것은 옳은 분류나 표현은 아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의학은 “과학적 연구 방법을 도입하면서 크게 발전한 학문”일 뿐 의학을 과학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의학은 히포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몸과 질병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시작되었으니 의학은 철학 즉 인문학에서 출발한 셈이라고 볼 수있다. 의학을 과학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1910년에 나온 플렉스너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미국을 시작으로 과학에 기초를 둔 의학 교육 과정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후 100여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의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현대 의학에서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의학이 흘러가고 있는 방향은 바람직한가?” 하는 자기 성찰을 하게 되었고, 의사에게 요구되는 자질도 많아지고, 교육해야할 내용도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치료 경향이 질병 치료 중심에서 환자 중심 치료로 바뀌어 가고, 연구 분야에서는 고도의 윤리 의식이 요구되고, 사법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과정에서 점차 인문학적 측면의 중요성이 부각하게 되었다. 이제 의학은 첨단 과학에 사회학과 인문학이 융합된 학문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이제까지의 의학 교육의 흐름을 보면 20세기 초에 시작된 의학 교육은 과학적,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인문학적 소양의 함양에는 소홀히 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요사이 많은 대학 병원에서 전인적 치료를 하자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기에는 참여하는 의사를 개개인의 인문학적 소양이 결여되어 있으면 결과는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전인적 치료에는 환자와 의시간, 의사와 의사간의 소통이 관건인데, 인문학적 소양이 없으면 이러한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근래에 교육계나 언론 매체에서 21세기에는 창의성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창의성이라 함은 뭔가 새로운 것,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내는 특별한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작 그것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누구나 지니고 있는 생각하는 힘을 의미하며, 그것을 잘 발휘할 때 창의성은 발현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인간을 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지 생각해보면 된다). 그러면 이러한 개념이 오늘날 만들어졌느냐하면 그것이 아니다. 2500여년 전에 공자라는 성현이 쓴 논어에 “절문이 근사(切問而近思)”라는 유명한 문장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창의성을 지칭한 것임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그리스 델포이 신전 기둥에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신탁이 쓰여 있다(사실 소크라테스가 오리지날이 아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과 관용을 배울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의학책이나 저널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인문학은 창의적인 사고의 원천이자 삶을 살아가는데 귀한 지혜를 주는 보고라 할 수있다. 가까운 미래에 인공 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간이 소외되지 않고, 인간의 고귀함을 지키며, 인간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인간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문학을 가까이하고, 인문학을 공부해야하는 소이(所以)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인문학! 거기에 길이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향해야할 오래된 미래가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대한건·주관절학회 Traveling Fellowship 제도 소개

의정부 성모병원 공재관

우리 대한건·주관절학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Traveling fellowship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더불어 다른 정형외과 분과학회에서 시행하는 Traveling Fellowship의 특징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회는 미국견주관절학회(American Shoulder and Elbow Surgeons), 일본견관절학회(Japan Shoulder Society), 유럽견관절학회(SECEC/ESSSE)와 협조로 Traveling fellowship 제도를 3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와 미국, 일본, 유럽 학회와의 교류 및 우호 증진 및 회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1997년 최초로 미국 Traveling fellowship을 시작되었으며, 10년 후 2006년부터 일본과 유럽 Traveling fellowship 제도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 기관 및 병원은 미국이 18개, 일본 8개, 유럽 10개 이상의 병원 및 대학교가 있습니다. 1997년 이후 지금까지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원수는 American Traveling fellowship에 박진영, 최창혁 회원이 최초 참여한 이래 지금까지 37명의 회원이 연수 기회를 가졌으며, Japan traveling fellowship의 경우 2006년부터 지금까지 11명의 회원이 참여하였습니다. European traveling fellowship은 2006년 이광진, 이웅걸 회원을 시작으로 9명의 회원이 참여하였으며, 2018년까지 Japan/European traveling fellowship 선정 회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Japan traveling fellowship은 일본견관절학회와의 협조로 한국-일본 간의 traveling fellow를 서로 파견하기로 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출수 해에는 일본 traveling fellow가 한국의 여러 병원을 방문하며, 짝수 해에는 우리 학회의 회원이 일본견관절학회 회원 기관이나 병원을 방문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수 기간은 4주 정도 전후이며, 지원 자격 조건은 American traveling fellowship 제도와 유사하며, 학회 가입 후 5년 경과한 회원이 지원 자격이 있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European traveling fellowship은 일본견관절학회와 유럽견관절학회와 협조하여, 한국-일본과 유럽 간의 traveling fellow를 서로 격년으로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매 출수 해에는 유럽 traveling fellow가 한국과 일본의 여러 병원을 방문하며, 매 짝수 해에는 한국과 일본의 각 1명의 traveling fellow가 유럽의 여러 병원을 방문하는 방식입니다. 2018년에 우리 회원 한 분과 일본 회원(호주 회원 추가 가능)이 4주 정도의 기간으로 유럽 유수의 병원을 탐방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의 지원 자격 조건은 우리 학회 가입 후 10년이 경과한 회원에게 자격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다른 traveling fellowship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정형외과 분과학회에서 시행되는 traveling fellowship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대한골관절학회, 대한수부외과학회, 대한족부족관절학회 등에서 우리 학회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이를 간단히 보면, 대한골관절학회의 경우 나이제한(만 45세 미만), 기간(2주) 및 연수 기관수(2~3곳)에서 우리와 달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회지(KSRR, 구 대한슬관절학회지)의 질적, 양적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학회지 인용률 증가에 기여한 회원 2명을 따로 선발하여 제약회사

2017년 올해 1월 초에 회원들에게 E-mail을 통한 공모를 통하여 2017년 미국, 2018년 일본, 유럽 traveling fellow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모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국의 Traveling fellow 프로그램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American traveling fellowship의 경우 매 출수년에 2명의 회원을 선발하며, 4주 전후의 연수일정으로 프래그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으로 학회 회원으로 가입한 지 만 3년 이상 경과한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학회 발표 경력이 우수한 회원, 영어에 능통하여 일상 대화에 지장이 없는 회원, 수련 병원 이상에 근무하는 회원, 외국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회원이 지원 가능하며, 선발 심의 기준은 학회 활동에 기여도가 높은 회원, 연수 후에도 장기간 지도 전문의로서 근무할 수 있는 회원을 우선 순위로 선정하며, 지원자 중 최종 결정은 학회 평의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기타 조건으로 연수 후 학회 학술 대회에서 연수 보고회를 가져야 하고, 해외 연수 경험이 없는 회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 후원으로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제도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수부외과학회의 경우 미국수부외과학회(ASSH)와의 협조로 매년 ASSH traveling fellowship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와 같이 전 회원들에게 공고를 하여 지원자 중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회원들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선정을 하며, 선정 기준으로는 나이제한(45세 이하)이 있으며, 1명을 선발하여 ASSH 학회 기간 중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raveling fellow로 선정된 회원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 ASSH 학회 등록비를 면제해 주며, 학회 기간을 포함하여 약 3주간 일정으로 ASSH에서 정한 일정 중 선택하여 방문할 기회를 제공받으며, 일정 금액 연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ASSH 학회 중 Bunnel symposium에서 international fellow 참가자에게 6-7분 정도 발표 및 토론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한족부족관절학회의 경우 일본족부학회(JSSF)와의 협조를 통해 격년제로 2명씩 교환 traveling fellowshi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2년에 한번 2명의 참가자를 선발하여 JSSF에 2주 일정으로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수 경비 지원의 경우 일본으로의 왕복 비행기 비용은 대한족부족관절학회에서 부담하며, 그 외 일본에서 일정 및 숙박, 교통편 등의 경비는 JSSF에서 모두 지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Traveling Fellowship 프로그램은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제도로 학회의 발전과 해외 학회와의 관계 개선 및 인적 교류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향후 회원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프로그램을 더욱 개선시키고 활성화 시킨다면 회원 개인 뿐 아니라 학회의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로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광주 동아병원과 심상돈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290병상규모의 동아병원은 정형외과를 비롯해 내과, 신경외과, 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산부인과 등 전문의 31명을 포함해 전체 직원은 300여명에 이릅니다. 1995년 개원 당시 광주최초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시작하여 3번의 건물 증축과 지속적인 인력, 장비 확충을 통하여 명실공히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병원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심상돈 원장님이 대표병원장을 맡고 있던 2011년에는 고용노동부가 일하고 싶고 노사 간 상생협력이 모범적인 기업에 주는 ‘일터혁신우수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동아병원을 대표하는 관절센터는 심상돈 원장님이 센터장을 맡고 계시며 전남대학교병원장을 지내신 노성만 명예원장님을 포함, 10분의 정형외과 원장님들이 외래와 수술실에서 환자진료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상돈 원장님은 동아병원 관절센터에서 견주관절분야와 스포츠의학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평소에 철인3종경기와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시며 다진 다부진 체력을 자랑하시며 많을 때는 하루 외래 환자 100명 가까이 진료하시기도 합니다. 지방의 특성상 의료혜택에서 많이 소외된 먼 시골에서 올라오신 환자분들로 아침 일찍부터 외래대기실이 북적일 때면 진료에 지장이 있을 법도 하지만 언제나 한결같이 특유의 온화한 미소와 입담으로 환자들을 맞이하십니다.



정형외과특성상 환자분들 중에 관절질환을 앓고 계신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아 그분들과 소통을 하려면 조금 더 세심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장님께 진료를 받기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에 출발하여 장시간 이동하여 피곤하기도 하실 것이고 막상 병원에 들어서시면 긴장하신 모습이 역력해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환자분들께 항상 온화한 미소와 친근한 태도로 편안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귀가 어두운 환자분이 가끔 못 알아들으시고 또 물어보시면 짜증날 법도 한데 더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심상돈 원장님은 항상 외래에서 수술실과 병동에서 직원들과 함께 움직이며 식사도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으십니다. 바쁜 진료 일과시간에도 병원 곳곳을 누비며 각 파트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일도 잊지 않으십니다.

심상돈 원장님은 철인3종경기에 항상 '완주'를 목표로 도전한다고 하십니다. 기록 경신과 입상이 아닌란 얘기죠. 철인3종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은 지름길을 달릴 수 없습니다. 주어진 코스로만 가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차를 얻어 탈 수도 없습니다. 도중에 포기해서는 더욱 의미가 없는 게 철인3종경기입니다. 목표를 향해 묵묵히 가는 인생살이와 다름이 없습니다. 험하다고 돌아가고, 멀다고 질러가고, 힘들다고 타고 가고, 지쳤다고 주저앉아 쉴 수는 없습니다.

“편법을 쓰고 속임수도 마다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인생을 정상적으로 사는 게 아니다. 어려움도 이겨내고 고통도 견뎌내고 위기도 극복하면서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달리다 보면 어느새 결승점에 와 있을 것이다.”라고 오늘도 직원들을 독려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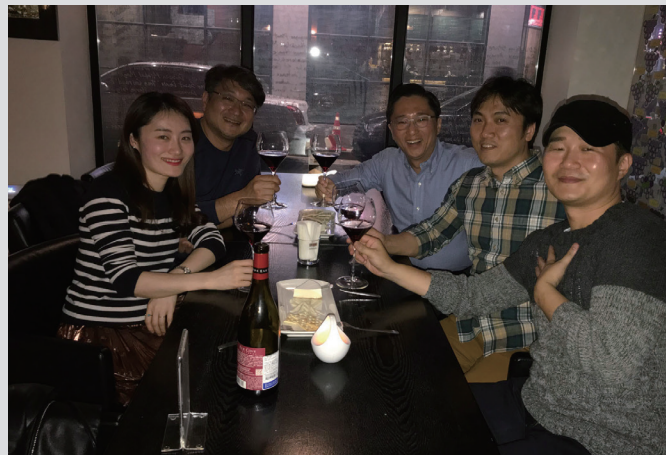
탐방기

홍보위원회 간사 조남수

심상돈 원장님을 뵈러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학회 및 심포지엄 참석차 여러 차례 광주에 방문하며 우연히 지나가다 얼핏 보았던 동아병원을 취재하기 위해서입니다. 홍보위원회 간사인 저와 김철홍 홍보위원장님이 함께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부산에서 있었던 지난 추계학회 이후 몸살이 나서 갑자기 오지 못하시면서 결국 외로이 혼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발길을 옮기며 광주의 대표적인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익히 알고 있던 터라 강호의 세계에서 강자로 거듭나기까지 그 과정이 궁금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심상돈 원장님께서 친근한 동네 아저씨 미소를 머금고 따뜻하게 맞아 주셨습니다. 깔끔한 외래, 웅만한 대학병원 정형외과보다 큰 규모의 수술실, 그리고 다양한 부대시설을 둘러보며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써 전혀 부족함이 없이 지역 사회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모습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운동치료실은 그 어느 병원의 시설과 견주어도 자랑할 만한 훌륭한 공간으로 보였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체력 단련장도 구경할 수 있었는데 그 넓은 공간을 직원들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신 모습에 이 같은 배려하는 마음이 결국 모든 직원들을 한 가족처럼 만들어 오늘의 동아병원으로 키워 오신게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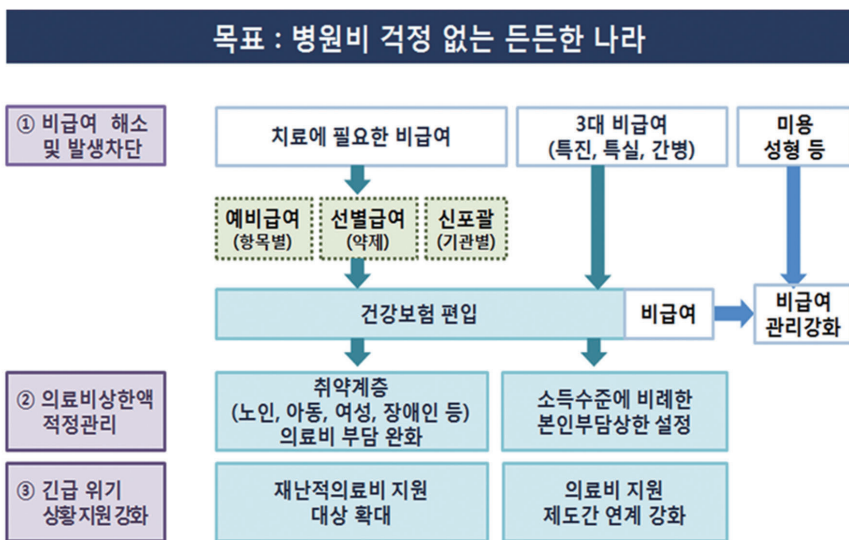
병원 취재 후 심 원장님과 함께 한 저녁식사에서 먹은 다양한 제철 회도 잊을 수 없고, 자리 옮겨 경험한 훌륭한 와인의 여운도 지금까지 감미롭습니다. 앞으로도 정도를 걸으며 지역 사회에서 최고의 의술 꾸준히 펼쳐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문재인 케어의 실체와 전망

날개병원 이태연

표 1.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 및 추진방안



이전 호 견주관절 다이제스트에서 초음파와 MRI 검사의 급여화 전망에 대해 다루었다. 기사가 출판되자마자 기사에서 예측했던 내용이 현실화 되었다. 그것도 초음파 MRI 뿐 아니라 의료 전반에 걸쳐서 “전면 급여화”라는 이름으로 파격적으로 다가왔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그것이다. 2017년 8월 9일,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골자는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 하여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ی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현재 63.4%인 건강보험 보장율을 7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의 주요 관점은 세가지로(표1), 첫째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둘째가 의료비 상한액 관리, 셋째가 긴급위기상황 지원 강화인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의사들이 가장 주목하는 항목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MRI, 초음파의 급여화를 완료하고 최종 2022년까지 기타 비급여 행위, 재료의 급여화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바로 2018년부터 척추 디스크 질환의 MRI가 급여화 되며, 2020년에 모든 정형외과 영역의 MRI, 초음파가 급여가 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표2). 비급여 항목들은 평가 후 세분되어 예비급여라는 이름으로 50~90%의 본인 부담율이 적용되게 된다(표3). 또한 3대 비급여의 해소라는 이름으로 2018년부터 선택진료제 전면 폐지되는 내용이 있으며, 상급병실, 간호간병의 급여화도 정책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신포괄수거제의 시행이다(표4). 2012년부터 강제로 시행된 포괄수거제를 질환 종류와 적용 병원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하겠다는 것이며 총액이 정해지면서 비급여의 새로운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정책이다.

표 2. 급여화 연도별 계획

< MRI·초음파 급여화 연도별 주요 항목 >

구분	'17~'18년	'19년	'20년
MRI	·인지장애 ·추간판탈출증(디스크)	·혈관성 질환 ·복부(간·담낭·췌장)	·근육·연부조직 질환 ·양성종양, 염증성질환
초음파	·심장·흉부질환 ·비뇨기계,부인과	·두경부·갑상선 질환 ·수술 중 초음파	·근골격계 질환 ·근육·연부조직혈관 질환

< 등재 비급여 연도별 해소계획 >

추진연도	주요 분야·대상	예시
'17~'18년	노인·아동·여성 등	·신경인지기능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등
'19년	만성·중증질환	·다빈치 로봇수술, 만성질환 교육상담료 등
'20년	안과질환·기타 중증질환	·눈의 계측검사(백내장), 폐렴균·HIV 현장검사 등
'21~'22년	척추·통증 치료	·대뇌운동피질자극술 등

표3.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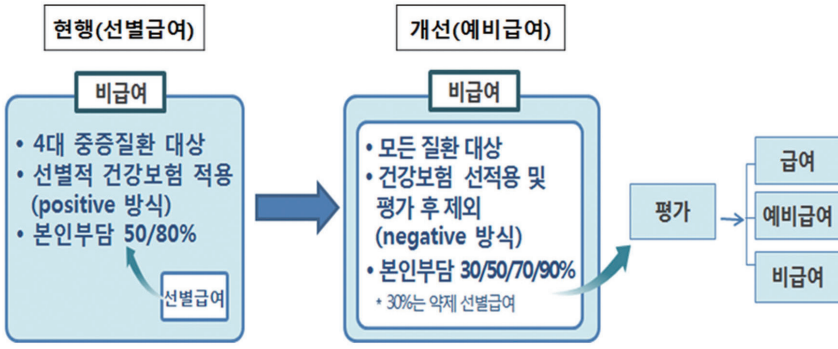


표4. 신포괄수가제, 신의료기술 정책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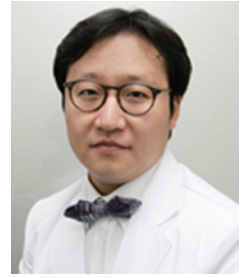
	현행	개선
신포괄 도입	공공의료기관 42개 비급여 인센티브 無	민간 포함 200개이상(22) 비급여 감축 인센티브 도입
신의료기술	신의료기술 비급여 판정 시 비급여로 잔존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
신포괄수가제		
◆ 입원에서 퇴원까지 발생하는 입원료·치료·약값 등을 묶어서(비급여 포함) 미리 가격을 정하는 제도 (559개 질병군 대상 : 종합병원 이하 입원 질병군의 약 90%)		

그러나, 이러한 정부 발표에 대해 의료계는 상당한 우려의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계는 낮은 의료 수가로 인해 발생된 적자를 비급여 항목으로 보완하여 겨우 경영을 유지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오래 전부터 유지해오고 있다. 따라서 의료 수가의 적정 보장이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의료계에 커다란 충격을 줄 것임이 자명하다. 또한 모든 항목을 급여화 하는 의미는 의료의 통제를 강화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사용량을 강제적으로 줄이고 삭감이 감행하게 된다면 이것만으로도 병원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커다란 요인이 될 것이다. 더군다나 정형외과가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관절, 척추 병원들은 비급여가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이러한 전면적인 급여화 정책이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진행될 경우, 보험재정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데, 건강 보험재정이 악화되면 결국 정부는 보험재정 절감정책 등을 내놓아 또다시 의료공급자의 희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저수가, 의료제한이 지속되면 의료기관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의원, 병원의 존립이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낮은 수익으로 병원을 경영하기 위해 의료의 질, 또한 낮아질 것이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는 신의료기술, 신약의 개발도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의 발전은 저해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재인 케어”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첫째는 물론 적정 수가의 보장이다. 아울러 의료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기전 및 합리적인 급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다. 예견된 3차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1차, 2차, 3차 병원으로 이어지는 진료체계의 개선과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는 의료비 부담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실손 보험의 반사이익 및 그 역할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잘 설정하여 의료비의 개선에 활용할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국회 뿐만 아니라, 정부 내부에서도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들이 하나, 둘씩 언급되어지고 있다. 향후 건강 보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가해질 수 있고 국가 의료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실행에 따른 정확한 재정추계 점검과 세부 항목 조율 등 면밀한 준비 과정을 거치는 것은 물론이고, 공급자인 의료계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보다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견주관절 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10가지 - 스마트폰 앱 활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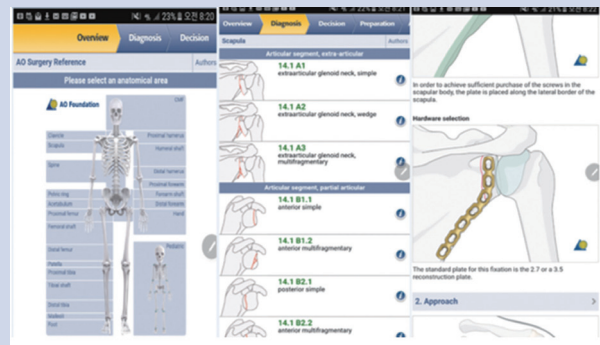


명지병원 김준엽

“스마트폰 중독인가봐, 밥먹고 있을때는 제발 하지 말자.” “어... 메일에 답 좀 하고..미안..” 스마트폰을 시도 때도 없이 쳐다보게 되서, 식사 시간에서조차 미안한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접하는 다양한 콘텐츠와 접근성의 매력은 스마트폰을 항상 곁에 두고 싶게 만듭니다.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폰 앱(어플리케이션)이 폭발적으로 개발되어 왔으며, 실제로 몇몇 앱들은 획기적으로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스케줄러 앱, 네비게이션 앱, 지하철 앱, 버스 앱, 커뮤니케이션 앱 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면 과장일까요? 의학분야에서도 콘텐츠 개발 및 진료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분야도 예외는 아닌 듯 합니다. 이 글에서는 견주관절 분야의 정형외과 의사로서, 진료에 도움이 되고, 효율성을 증진 할 수 있는 10가지 앱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 소개의 키워드는 ‘무료, 안드로이드, 정형외과, 견주관절, 수술, 동영상, 진료’ 정도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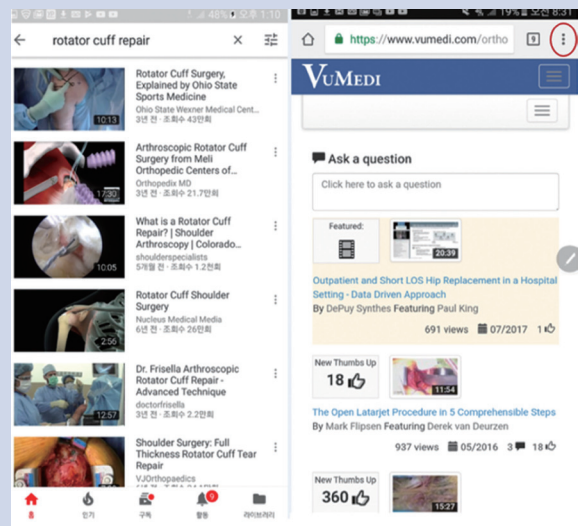
① 골절에 대한 꼭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싶을 때, “AO surgery reference (AOSR)”

골절의 분류, 접근법, 수술방법, 수술후 치료등을 간단하고, 빠르게 리뷰하고 싶을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전공의 때는 웹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서 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앱으로 개발되어 있으며, 콘텐츠도 지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어, 신뢰할 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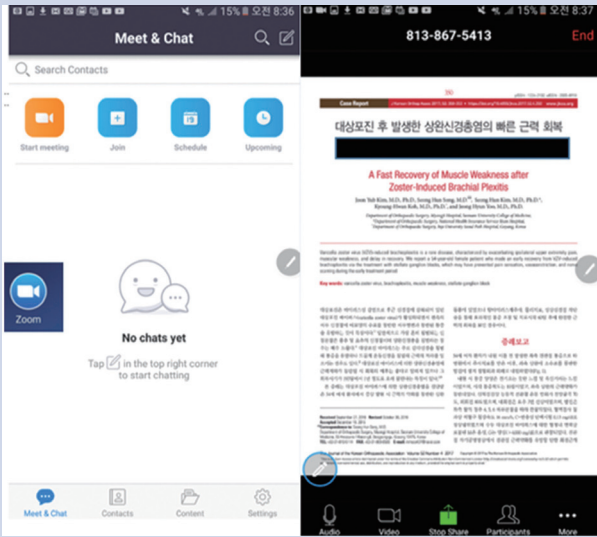
② 수술 방법을 찾아보고 싶을 때, 초음파 술기 등의 공부를 하고 싶을 때, 강의를 듣고 싶을 때, 영어공부를 하고 싶을 때, “YouTube” 와 “VuMedi”

수술 술기, 기구의 실제 적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싶을 때, 국내외 유명하신 선생님들의 수술 동영상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학적 검사 방법 및 초음파를 이용하는 방법 또한 자세히 나와있으며, conference 발표 영상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top-notch 강의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시 영어공부용으로 들을 수도 있으며, VuMedi 웹사이트(<https://www.vumedi.com/ortho>)는 이메일로 관심분야를 등록하면, 수시로 업데이트 정보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해서, 스마트폰 상단 우측의 점 세개 (그림에서는 빨간색 타원인)를 클릭하여, 홈화면 추가를하면, 앱을 이용하듯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접속이 되어야 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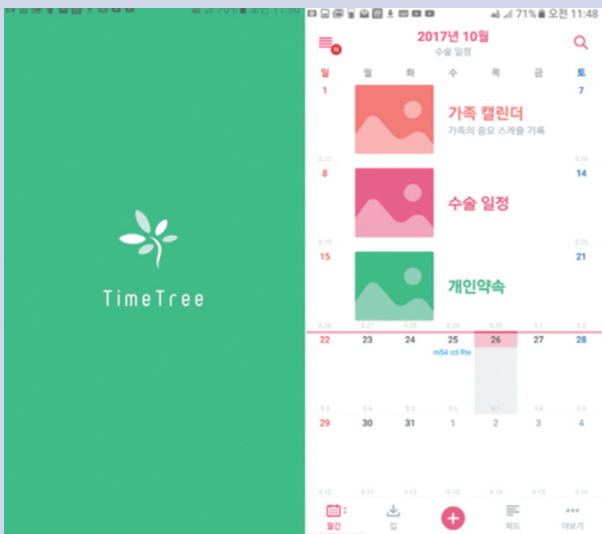
③ 동료 의사들과 언제 어디서든 화상회의를 하고 싶다면, “Zoom”

발표자료 uploading 없이, 모두의 얼굴을 드러내고, 회의만 하고 싶다면, Google의 Hangout등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앱이 몇몇 있으나, 대부분 유료이거나 발표 자료를 uploading은 못하는데, Zoom은 앱에서도 프리젠테이션 파일 share기능이 있어, 파일 upload를 할 수 있으며, 확대, 축소가 가능하다는 점과 파일 위에 그리기 기능이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④ 수술 스케줄 달력을 따로 만들어 동료 의사, 간호사와 공유하고 싶다면, “Timetree”

예전에 구글 달력으로 의료진간 수술 스케줄을 공유했었습니다. 외래에서나 병동에서 수술 스케줄이 잡히면, 구글 스케줄러에 추가되고, 지메일로 정보가 오긴 했는데, 메일을 열어보거나, 달력의 해당 날짜를 자주 열어보지 않으면, 수술 스케줄 변동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스케줄이 취소되는 경우에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개인 스케줄을 첨부하는 경우에, 원치않게 다른 동료에게 스케줄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스케줄러는 개인 스케줄 캘린더 외에 수술 캘린더를 따로 만들 수 있고, 등록 및 취소 모듈에 대해 알람 기능을 적용 할 수 있고,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서비스로 전송도 되어, 스케줄 변동에 대해 알기가 편합니다.



⑤ 외상과 관련된 상병코드 및 상해 진단서는 “상해진단서”, 질병 분류기호가 필요할 때 “질병 분류 기호”

진료실에서 진단서 쓸 때 진단 주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해 진단서 앱이 있으면, 쉽게 상병코드 및 진단 주수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질병 분류기호를 알고 싶다면, 질병 분류 앱을 참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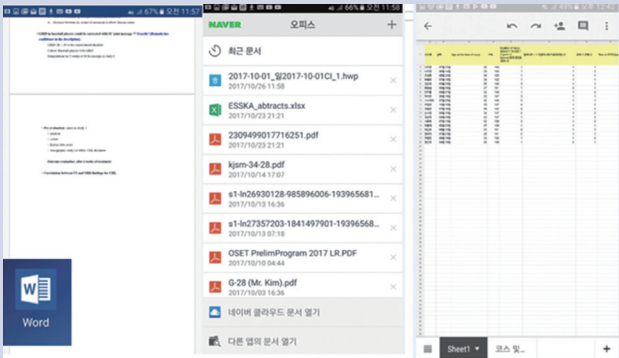
⑥ 사진 자료로 각도를 기록해 놓고 싶다면, “Camera protractor”

실제 안드로이드 기반의 goniometer 앱이 다수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에 내장된 센서를 이용하여 각도를 측정하는 원리로 작동됩니다. 여기서는 “Goniometer records”와 어깨 팔꿈치 각도 측정에 특화된 “yROM” 등이 있다는 것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결과, 센서가 너무 민감해서 기준점을 잡는 것이 힘듭니다. 따라서, 사진을 촬영해서, 각도기로 측정하는 방법 (PACS에서 사용하는 것처럼)이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Camera protractor”는 사진 촬영 후 세가지 꼭지점을 지정할 수 있고, 상대적인 길이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꼭지점의 변을 고정할 때는 사진이 확대되어서, 정확하게 위치 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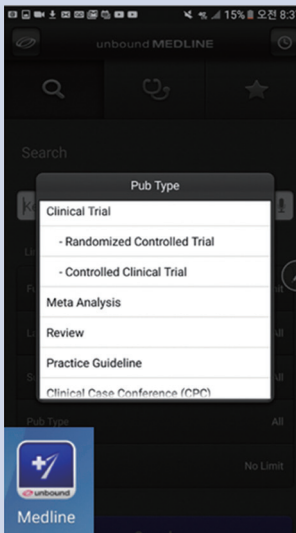
⑦ 이동 중에 간단히 문서 작업을 하고 싶을 때, “Microsoft word”, “네이버 오피스”, “구글 스프레드 시트”

Polaris office, Microsoft office 같은 통합형 앱도 있으나, 과한 느낌입니다. 또한, 엑셀과 powerpoint는 스마트 폰에서 작업을 거의 안하니, 간단한 워드나 한글 작업이 가능하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 정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앱은 데스크탑 워드와 달리 무료 가입만 하면 쓸 수 있습니다. 스마트 폰 자체에도 저장도 되지만, 카톡, 메일로도 그 자리에서 쉽게 전송이 가능하게 장점입니다. 네이버 오피스는 한글 작업용으로 우수하며, PDF, excel파일을 열어보기 좋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 spreadsheet은 여러 선생님들께서 데이터를 공유하며, 웹상(예를 들면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공유하며, 수정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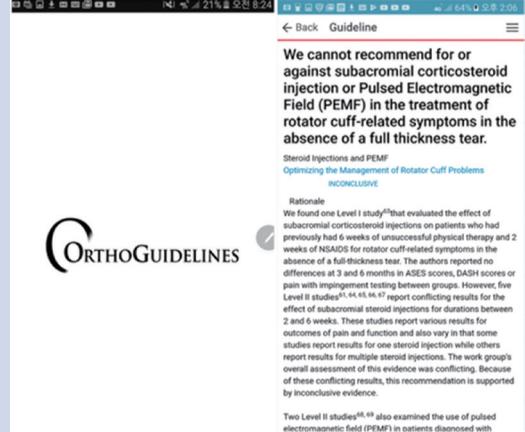
⑧ 스마트 폰으로 논문을 검색하고 싶다면, “Unbound Medline”

Pubmed 기반의 검색 앱으로, 1100만개의 논문을 검색 할 수 있습니다. Study design을 설정하고, 최근 논문을 기간별 설정으로 (최근 1년 등등) 검색 할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⑨ AAOS(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 제시한 evidence based 치료 가이드 라인을 알아보고 싶을 때, “Orthoguidelines”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 연간 PDF 파일로 배포하던 것을 앱으로 만들어서 근거중심의 치료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⑩ 환자의 기능적 점수를 쉽게 계산해 보고 싶을때, “Orthopaedic Scores”

www.orthopaedicscore.com 에 접속 하셔서, 화면 추가 기능을 이용하시면, Constant score등의 기능적 점수 합산을 웹상에서 앱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웹플리케이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다른 정형외과의 앱에 대한 정보는 toprthoapps.com에서 찾아 보실 수 있으며, 그외의 다양한 분야의 의료 앱에 대한 정보는 https://www.imedicalapps.com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제 주관적으로, 추천 앱을 선정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분명히 더 좋은 앱을 알고 계시고, 스마트 하게 이용하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조그마한 감남으로 이 글을 읽으시는 선생님들의 진료 및 기타 생활이 약간 더 스마트해 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산을 바라보며 느끼는 행복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라며, 미국 Baltimore에서 김준엽 올림.



내게 Journal of Shoulder and Elbow Surgery의 Basic Science Editor란?

분당서울대병원 오주한

5:30 AM, “Starry starry night ♪~~~”이 어두운 내 방에 울려 퍼진다. 언젠가부터 나를 매일 아침 깨우는 내 핸드폰의 알람 소리... 빈센트 반 고흐처럼 열정을 가지고 살기 위해 알람 송으로 저장했지만, 이 노래 소리만으로는 이른 새벽부터 하루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기상하기는 정말 힘들다... πππ

모두가 그렇겠지만, 기상 후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각종 이메일 체크...대개 새벽에 도착해있는 메일의 대부분은 광고 등의 스팸 메일이다. 하지만, 빠지지 않는 메일의 하나는, 알 수도 없는 각종 저널에서 날라오는 review request 혹은 원고 요청일 것이다. 잠을 깨면서 이런 쓰잘데기 없는 메일을 지우노라 보면, 혹시 내가 보낸 review invitation도 이런 취급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살짝 되기도 한다.

올 4월부터는 다른 집단의 메일들이 등장했다. 바로 Journal of Shoulder and Elbow Surgery (JSES) Basic Science (BS) Editor의 “잡무”와 관련된 메일들이다.

“왜 이 논문은 모두 다 decline 하는거야?” “이 논문은 reviewer들의 review가 다 끝났네. Editor’s decision을 써야 하는데, 한 명은 accept인데, 다른 한 명은 reject이네. πππ” “새로 내게 assign된 논문이... 뭐 4개? 오늘 수술도 많은데 8명의 reviewer를 어떻게 선정하지?” 새벽 잠이 확 달아나는 순간들이다.

JSES의 BS Editor로 위촉된 이후의 생활들은 이전과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고, 바빠졌지만 크게 다르지 않기도 하다. 나와 비슷한 생활을 하는 전세계의 많은 동료들의 생각과 고민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추가된 메일만큼 추가된 내 행복이라고 자위하면서 화장실로 향한다.

대학 교수... 교육·연구·진료... 그 모든 것은 각종 연구의 publication으로 증명되고 평가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저명한 국제학술지의 편집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교수로서 의사로서 또 다른 큰 영예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Impact factor가 매우 높은 Science나 NEJM과 같은 대 저널도 아니고, 전통적인 정형외과의 대표 종합 SCI 저널인 JBJS나 CORR도 아닌, SCI impact factor 3.1(5년 평균) 정도의, 견주관절 분야에서는 최고 저널이기는 하지만 정형외과로 보면 상위 20%의 Journal of Shoulder and Elbow라는 분과 학회지의, Editor-in-Chief도 아니고 Basic Science Editor에 불과(?)한데, 대한·견주관절학회 소식지에 “JSES BS Editor 입성기”라는 원고를 부탁 받은 것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면목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낮 간지럽지만, 굳이 나름대로 JSES BS Editor라는 직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 동안 각종 임상 연구의 수행과 출간에도 정신이 없었지만, 개인적으로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아시아 2번째) 2013년 Charles Neer Award, 한국에서 수행한 한국인 연구자로는 처음으로 2016년 ORS NIRA (New Investigator Research Award) Winner등, 팀원들과 함께 시간을 쪼개며 시행하여 온 각종 basic science research들을 인정해주고 이에 대해 어느 정도 ‘보상’ 해주었다는 생각에, 매우 감사하고 뜻있는 일이라고 믿고 싶다.

학회 입장에서는, 아시아, 특히 대한민국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 저술 능력을 인정받아 대한·견주관절학회원이 당당히 주요 저널의 주요 Editor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직책이 비록 보잘 것 없는 것 같아도 그 의미는 개인적으로나 학회 차원에서나 무척 크다고 자부한다.

이 자리를 빌어, Journal of Shoulder and Elbow의 Basic Science Editor로 위촉 받는데 sponsor를 해주신, 미국 스승이자 친한 “동료”인 Thay Q Lee (이태규) 선생님과, 우리 학회의 선도자이시고 아직도 불 같은 논문 열정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이용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JSES의 BS Editor가 된 후 좋은 점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현재 세계 각국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수행하는 각종 “따끈따끈한” 연구를 누구보다 더 먼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내 연구의 방향을 바로 잡거나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할 기회가 된다는 것이 무척 감사하고 소중한 일 중의 하나이다.

JSES의 review system을 알게 되어 대한·견주관절학회지인 Clinics in Shoulder and Elbow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좋은 점이지 싶다. Reviewer 자체에 대한 평가 및 관리하는 방법, 학회지를 발전시키려는 장기적인 plan 등, 이 직책을 수행하면서 얻은 각종 정보가 CiSE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비(?) 역시 장점의 하나이다. Editor's stipend가 연 8500달러이니, 일을 한 만큼 주는 미국답다. 봉사와 헌신을 요구하는 동양적인 사고와 달리, 일을 하니깐 돈을 그만큼 준다는 미국적, 자본주의적 사고를 내 주머니는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아직 마누라에게는 말하지 않았는데, 주요한 내 비상금이 될 듯 하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점의 뒷면에 도사리는 안 좋은 점들... 예상하고 계시듯이 엄청난 잡일이고, 시간적 소요가 많다. 제일 힘든 것의 하나는 적절한 Reviewer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Reviewer pool이 넓기도 하지만, 누가 무엇을 전공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고, 임상적 연구와는 달리 기초 연구는 조금만 분야가 달라도 review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reviewer의 선정이 가장 힘든 일이다. 그래서,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보다는 clinical relevance를 가지는 기초 연구가 의미 있는 연구 이므로, Basic science reviewer 뿐만 아니라, clinical reviewer들도 많이 invitation하고 있다.

또 한가지 어려운 점은, elbow 관련 논문이나 내가 전공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가 아니면 앞을 못 보는 깜깜 장님과도 같은지라, Reviewer's comment만을 근거로 Editor's decision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만일 한 명은 accept, 다른 한 명은 reject로 결과를 보내오면 난감하기 그지없다. 관심 있고 관련된 분야라 할지라도, 모든 제출된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읽을 수도 없고, 모든 논문을 다른 reviewer들과 같이 review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기에, 또한 머피의 법칙인가, 진료,

학회 등으로 한창 바쁠 때 이런 논문 review도 몰리는 경우가 많기에, 피상적인 Editor's decision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매 연제가 마친가 지이다.

비록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받기는 하지만, BS Editor라면, Editor-in-Chief가 내가 writer로서 제출한 논문들에 대한 accept 여부를 결정할 때 조금이라도 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다른 저널들도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믿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Reviewer들의 comment와는 달리 reject되거나 JSES open access로 추천하는 Mallon의 메일을 받으면서, 최소한 JSES는 공사의 구분이 명확한 듯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JSES는 확실히 우리보다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슷한 연구를 바로 Editor site에서 클릭 한번으로 찾아볼 수 있고, 논문의 유사성을 %로 표시해 줌으로서 Reviewer 선정에 도움을 받기도 한다. 물론 Pubmed로 들어가도 되지만, 유사한 연구들이 sorting되는 시스템은 Editor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다.

Reviewer에 대한 정보도 잘 정리되어 있는 편이다. 물론 더 update되어야 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어 보이지만, 현재 대한·견주관절학회 보다는 나아 보인다. 현재의 소속과 위치, 언제 review를 accept했고, 언제 review를 마지막으로 했고, 언제 decline 했고, 몇 번이나 했고, Editor가 그 reviewer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도 있고, 그 점수도 나와 있으며, 관심 분야를 표시할 수도 있는 등, Editor의 고민들을 많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저자 혹은 reviewer와 쉽게 소통할 수 있는 tool이 있는 것도 좋아 보인다.

SCI 급 저널의 Publisher와 일하고, 우리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접목된다면 CiSE의 미래도 매우 밝다고 생각하며, CiSE의 Reviewer와 Editor 모두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과 희생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얼핏 생각하면, 남의 연구를 Review 해주는 것이 괜히 남 좋은 일 해주는 것 같고, 바쁜 시간에 이 짓을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며, 대충 대충 철자법이나 고치는 ‘불량’한 review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 대한 review는 내 연구 논문을 잘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비록, 시간도 걸리고, 남의 일 해주는 것

같고, 돈도 못 받고, 당장 득이 되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비판적 시각에서 논문을 읽고 그 연구의 장단점과 평가를 하게 되면, 내가 쓰는 논문 역시 더 좋은 방향으로 작성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전공의 때부터, 아니 지금부터라도 비판적으로, reviewer 입장에서 논문을 읽는 습관을 추천한다. 좋은 Reviewer가 좋은 Writer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한국 Reviewer의 숫자가 생각보다 적다. 논문을 publish하는 연구자들에 비해, international journal에 reviewer로 활동하는 분이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제 1저자나 교신 저자, ASES의 travelling fellow를 다녀온 선생님들은 가능하면 능동적으로 시간을 내서 Reviewer로 활동하는 것을 권한다. 각 저널에서 좋은 Reviewer로 활동하는 것이, 논문을 좋은 저널에 publish하는 것만큼 개인과 우리 학회를 홍보하고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외국인 Associate Editor나 Editor는, 사실 한번도 reviewer로 참여하지 않았으면 한국 선생님들을 Reviewer로 추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누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제가 많은 분들을 Reviewer로 invitation할 예정이니, positive한 마음으로 JSES review도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런 바쁘고 정신 없는 생활을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다. 학회 총무가 끝나고 ICSES 사무총장이 끝나면, 내 개인적인 시간도 많아지고 가정과 보내는 시간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전히 수술장에서, 외래 진료실에서, 연구실에서 하는 일들은 비슷하다. 외국은 더 많이 나돌아 다니는 것 같으며, 아직도 여기 저기 회의에 희식이다. 요즘은 평창 동계 올림픽도 나를 정신 없게 할 태세이다. 하지만, JSES의 BS Editor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사명감과 애착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 중 하나이다. 이 글을 쓰면서도, Editor로 활동하는 동안은 대한·견주관절학회의 회원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된다. JSES의 BS Editor 직을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각종 정보, knowhow와 tip들에 대한·견주관절학회와 공유하면서, 개인적 영예 및 명성 보다는, 가장 시급한 과제인 CiSE의 성공적인 SCI 저널 진입을 위한 학회의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보아야 하겠다.

오늘 새벽도 빈센트의 음악 ♪를 들으면서 눈을 뜬다. 왼손에 들린 핸드폰에는 여전히 많은 메일들이 도착해 있다. 또 열정적인 하루를 위해... Bravo My Life~~

해외학회 참관기

2017 SECEC 베를린-폴란드 여행 후기

원주기독병원 김두섭



여행은 항상 나를 설레게 합니다. 더욱이 이번 여행은 사랑하는 대한건·주관절학회 회원님들과의 추억 쌓기며 또한 여행 총무란 중책이 내게 주어 졌습니다.

여행 총무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총대를 무조건 메는 자 라는 다소 비장한 마음으로 이번 여행에 임하고자 하였습니다. 여행의 반은 떠나기전 준비라는 말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소주 200팩, 컵라면 100개, 마른 안주 수십봉, 김치 등등을 준비하며 함께 즐길 소주 타임에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유불급 이란 격언을 좋아하지만 여행의 소주에는 해당사항 없음 이겠조?

드디어 9월 13일 KE 937 학회 전세기(?)로 베를린으로 출~발. 2017 SECEC 학회는 9월 14~16일간 베를린 intercontinental hotel 에어 개최되었습니다. 박형빈 교수님께서 기초 의학 세션에 세계 석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강의를 하셔서 모든 회원들이 기뻐했었습니다. 사진 1은 학회장 입구에 있던 그림인데 매우 흥미롭습니다.

회원 모두 학회장앞 단체 사진 찰칵.(사진 2)



사진 2

14일 베를린 근교 투어를 시작하였습니다. 포츠담 회담으로 유명한 포츠담에서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체칠리기엔 호프 궁전(Cecilienhof Palace)에 도착, 그 곳의 역사적 의미에 비해 장소는 매우 협소하여 2차 세계대전의 피폐함을 조금이나마 느낄수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의 도시 비텐베르크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95개 논제(1517년 10월 31일) '대자보'를 붙인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들어 갔습니다.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도 이 장면(사진 3)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사진 3



고풍스런 인쇄기, 잉크 냄새가 가득한 방에 들어 갑니다. 지금도 종교 관련 그림을 인쇄하고 있군요.



사진 4

저 인쇄기로 학회지를 만들면 어떨까?(사진 4. 인쇄기) 편집장님께 건의를 해볼까 싶지만 안되겠조? ㅋㅋ 모두 함께 독일 맥주로 하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15일 카이저 빌헬름 교회, 브란덴부르크 문, 찰리 검문소를 갑니다. (사진 5. 단체 사진속 우리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어요. 따스한 햇살이 광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사진 5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학회도 여행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건·주관절학회가 자랑하는 회식, 호도리 식당으로 전원 집결. 김정만 교수님, 문영래 회장님의 인사말 이후 즐거운 해피 타임을 가졌어요. 물론 소주가 빠질수 없죠. 함께 온 전임의 선생님들, 2명의 전공의 선생님들(김용덕, 윤명기)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16일 드디어 베를린을 떠나 엘베강의 피렌체로 불리는 드레스덴으로 이동합니다. 초빙거 공전과 정원, 드레스덴 대성당과 드레스덴 성, 그리고 수 만 개의 마이센 자기로 만들어진 101m의 군주의 행렬, 드레스덴을 가로질러 흐르는 엘베강 모두 잊을수 없는 한 폭의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진 6. 각각의 표정, 시선을 보세요. 매우 재미 있습니다. 앞만 응시중인 김유진 선생님. 굉장하 불만에 가득찬 신상진 선생님. 사모님만 두고 어디론가 가버린 김정만 교수님. 모두 행복해 보입니다. ㅎㅎ



사진 6

17일 드디어 폴란드 입성. 이른 아침부터 3시간여를 달려 폴란드 브로츠와프르로 이동합니다. 화사한 파스텔톤 색감의 중세 건축물들 둘러싸인 구시가지 광장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동 중 여행 가이드의 슬픈 폴란드 역사 이야기는 옛날 동화로 느껴질 만큼 도시의 정경이 푸근합니다. 매일밤 이른바 두섭 바(제 호텔 객실은 거의 매일 밤 소주, 컵 라면 냄새로 진동했어요. 걱정마세요. 청소하시는 분을 위한 팁은 매일 두둑히 놓고 나갔어요.)을 오픈 하였습니다. 사진 7 거의 매일밤 우리는 이렇게 지세웠습니다 ㅎㅎ. 사랑해요 신상진 선생님 !!!



사진 7 ▲

18일 월요일 소금광산으로 유명한 크라코프로 이동합니다. UNESCO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700년 역사의 소금광산, 매우 인상적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까지의 거리를 지하 땅굴로 뚫고 소금을 채취했다고 하네요. 또한 그 땅속에서 말도 키웠다고 하니, 갑자기 땅속에서 눈이 멀고만 말들이 가엽게 여겨집니다. 광부들이 손수 만든 성당은 경이롭기 까지 했습니다. 사진 8. 저녁 식사를 한 곳은 옛적 기도원 창고였어요. 매우 아늑한 곳이에요.



사진 8

19일 귀국 전날입니다. 크라코프에서 바르샤바로 이동하는 동안 따뜻한 햇살, 신비로운 구름, 따뜻한 커피 ... 중간 휴게소 마저도 편안합니다. 바르샤바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낭만적인 분위기의 쇼팽공원. 폴란드는 쇼팽을 낳았죠. 거리거리마다 쇼팽을 기억하는 동상. 벤치에서 그의 음악을 흘러나옵니다. 사진 9. 거리를 거닐며 멋쟁이 7인의 유럽 인증샷 찰칵.

사진 9



퀴리부인으로 알려진 마리 스클로드스카가 살았던 퀴리부인 생가도 방문 하였습니다. 그녀가 바르샤바 대학에 입학하려 했지만 여자란 이유로 입학이 불허 되었다 하네요. 마지막 날의 만찬을 와인과 함께 했습니다. 심상돈, 류인혁 원장님 후원 감사드려요. ㅎㅎ 2차는 역시 대동 단결 독일 전통 맥주로 하였습니다. 여행 기간 평소 어려웠던 교수님을 특히 김정만 교수님과도 많은 담소를 나누어서 행복했습니다.(사진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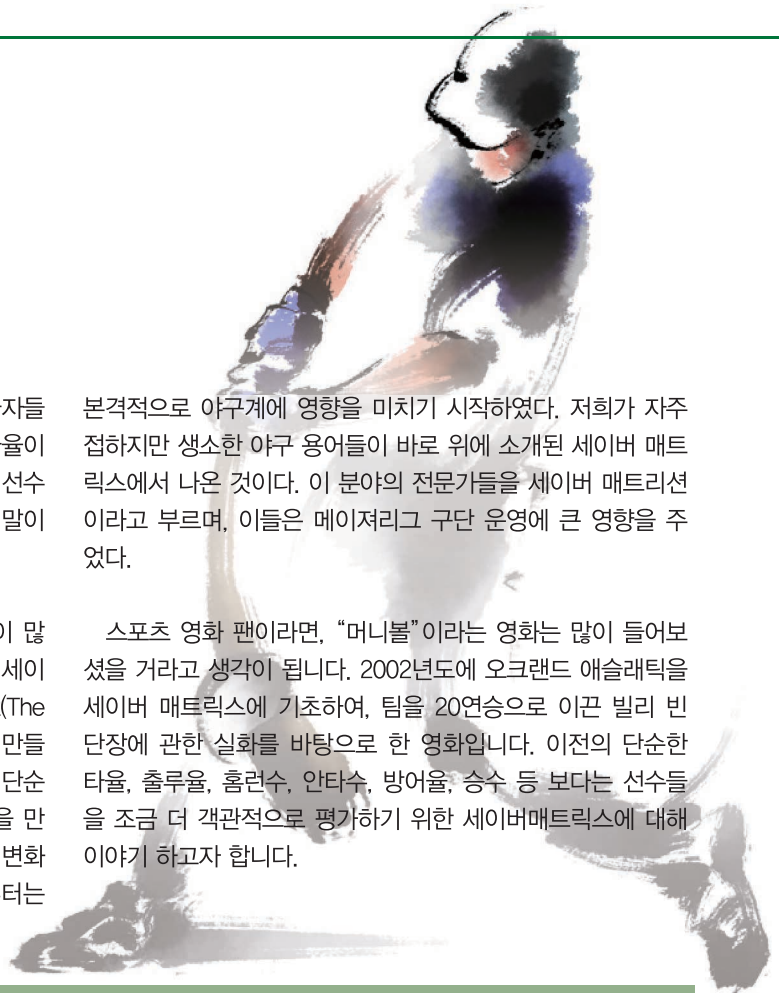


사진 10

요즘 우리들 세대는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추구 세대가 합니다. 기성 세대는 내일의 안위를 위해 오늘을 희생했지만 지금은 오늘이 내일보다 행복하리란 생각을 갖진 않습니다. 이번 학회 여행은 회원 모두에게 소확행을 주었습니다. 느긋한 일정과 비교적 좋은 날씨로 모두 편안 하셨길 바랍니다. 이상 2017 secoc 여행 총무 김두섭이었습니다.

야구 통계학(타자)

네온정형외과 이제형 · 박진영



TV를 통해 야구를 볼 때 마다, 항상 타석에 들어서는 타자들의 타율과 해당 경기의 성적이 표시된다. 이를 보면서, 타율이 높으면 이 타자가 잘 치겠지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며, 이 선수가 팀의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 믿게 된다. 대부분은 맞는 말이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세이버 매트릭스(Sabermetrics)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된다. 위키피디아(Wikipedia®)에 따르면, 세이버 매트릭스(Sabermetrics)는 빌 제임스가 창시한 SABR(The Society for American Baseball Research)라는 모임에서 만들어진, 야구를 통계학적/수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이며, 단순한 개인의 취미 차원을 넘어서 야구 전반에서 쓰이고 있을 만큼 널리 퍼져 있습니다. 창시되었던 1970년대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였으나, 1980년대를 넘어 199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야구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저희가 자주 접하지만 생소한 야구 용어들이 바로 위에 소개된 세이버 매트릭스에서 나온 것이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세이버 매트릭션이라고 부르며, 이들은 메이저리그 구단 운영에 큰 영향을 주었다.

스포츠 영화 팬이라면, “머니볼”이라는 영화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2년도에 오클랜드 애슬레틱을 세이버 매트릭스에 기초하여, 팀을 20연승으로 이끈 빌리 빈 단장에 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전의 단순한 타율, 출루율, 홈런수, 안타수, 방어율, 승수 등 보다는 선수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세이버매트릭스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OBP : (\text{안타 개수} + \text{베이스온볼스} + \text{사구}) \div (\text{타수} + \text{베이스온볼스} + \text{사구} + \text{희생플라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출루율이다. 타석에서 타자가 베이스로 살아나간 횟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이다. “일단 나가야 득점을 할 수 있다”, “1루는 훔칠 수 없다”는 개념에 입각해서, 타자들에게 중요한 기본적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테이블 세터진에서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되고 있다. 하지만, 클린업 트리오에서는 타점을 책임 져야 할 타자들이 본인의 출루만 책임지다가 중심타자의 책임론을 비판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며, 다른 지표가 몇몇 타순의 타자들에게는 더 중요한 지표로 생각되고 있다.

$$SLG : \{ \text{단타 개수} + (2 \times \text{2루타 개수}) + (3 \times \text{3루타 개수}) + (4 \times \text{홈런 개수}) \} \div \text{타수}$$

단타는 1, 2루타는 2, 3루타는 3 그리고 홈런을 4로 계산하여 합한 수를 타수로 나눈 수치이다. 장타율이 0.700인 타자가 있을 경우, 장타를 칠 확률이 70%가 아닌 타수당 0.7의 진루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 이다. 예전에는 중요한 지표였으나 요즘은 OPS에 가려져서 그 활용 빈도가 조금은 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OPS : \text{출루율}(OBP) + \text{장타율}(SLG)$$

말 그대로 출루율에 장타율을 합한 수치이다. WAR(승리기여도)과 더불어 타자의 가장 중요한 수치로 중용되고 있다. 출루율과 장타율을 같은 가치로 책정해서 합한 수치이므로 사실 논란도 많은 지표이다. 하지만 간편성으로 인해 현재 타자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다. 사실 출루율은 낮지만 장타율이 높은 타자들에게 유리하게 측정 된다는 단점은 있다.

$$WAR : RAR / (R/W) : \\ \langle RAR = (\text{타격에서의 기여도}) + (\text{수비에서의 기여도}) + (\text{포지션에 따른 조정}) + (\text{주루에서의 기여도}) \rangle$$

대체선수에 비해 얼마나 많은 승리에 기여했는가를 알아보는 수치이다. 가령 1921년 베이브 루스가 기록한 WAR(14.0)은 대체선수에 비해 팀에 14승 정도를 더 안겨 주었다는 수치이다. 대체선수 기록의 선정과 그리고 보정까지 거쳐야 하는 어려운 계산 방법으로 포지션 별로 아직도 보완이 필요한 지표임에는 분명하다. 사실 대체선수의 기준은 1.평균 이하의 성적을 기록하는 선수, 2. 트레이드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선수, 3. 많이 뛰면 뭘수록 팀 성적에 악영향을 끼치는 선수로 정의 된다. 이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지만, 모든 선수들이 같은 기준을 적용 받는다는 점에서 비교적 공평 하기도 하다. WAR은 사실상 통합 지표라고 보여지며, 이전에 여러 수치를 놓고 비교했던 것과 달리, WAR수치 하나만 가지고도 선수 영입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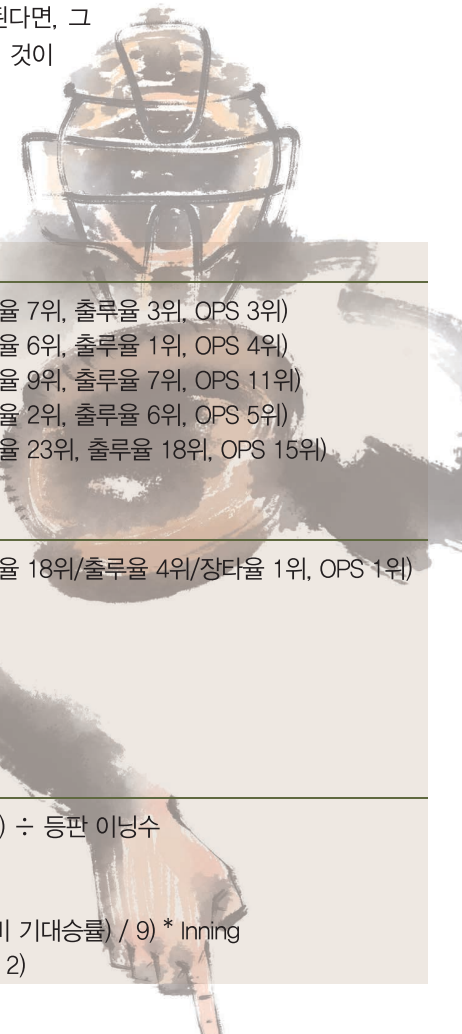
2017년도 KBO 기록입니다.

타율			출루율			OPS			WAR(KB report)		
1	김선빈	KIA 0.370	1	최형우	KIA 0.450	1	최 정	SK 1.111	1	최 정	SK 7.30
2	박건우	두산 0.366	2	박민우	NC 0.441	2	로사리오	한화 1.075	2	김재환	두산 7.22
3	박민우	NC 0.363	3	김재환	두산 0.429	3	김재환	두산 1.032	3	최형우	KIA 7.20
4	나성범	NC 0.347	4	최 정	SK 0.427	4	최형우	KIA 1.062	4	박건우	두산 7.04
5	박용택	LG 0.344	5	박용택	LG 0.424	5	박건우	두산 1.006	5	로사리오	한화 5.75

2017년도 정규 시즌 프로야구 기록을 살펴보면, 일단 타율이 높은 타자가 기본 통계 수치에서 좋은 지표로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단순히 타율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전체적인 타자 지표를 평가하기엔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 SK 최정 선수를 예를 들면, WAR은 측정하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일부 기관에선 두산 김재환 선수가 최정 선수 보다 높게 순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KB report에 따르면 최정 선수가 근소한 차이로 2017년도에 WAR을 1등을 차지하였다. 사실 최정 선수는 타율이 18위이다. 하지만 높은 출루율(4위) 과 장타율(1위)로 OPS 1위에 랭킹 되어있으며, WAR은 무려 7.30으로 대체선수에 비해 평균적으로 7.3승을 팀에 더 안겨주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존에 타율로는 저평가(물론 18위로 0.316을 기록하였으며, 매우 잘한 수치입니다) 될 수 있는 상황에서, OPS와 WAR로 최고의 선수임이 입증 되었다. 김재환 선수(타율 7위, 출루율 3위, OPS 3위)나 최형우 선수(타율 6위, 출루율 1위, OPS 4위)처럼 타율 및 출루율이 최상위권에 랭크 된 경우 보편적으로 수공이 가지만, 이전에 보편적 가치로 여겨지던 타율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하는 부분이다.

WAR도 사실 문제점은 많다. 측정하는 기관마다 다르며, 특히 수비 부분은 타격에 비해 균등한 기회를 보장 받지 못하며 그리고 눈으로 실제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상황을 읽어 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비 지표 평가를 위해 UZR이나 DRS등을 비디오 분석을 통해 분석하기에, 눈으로 보고 분석했다고 할 수가 있다. 이에 논란은 많지만 수비지표를 이용한 WAR은 현재 중요한 지표로 쓰기에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원래 야구 통계를 이야기 하자면 훨씬 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다. 야구에서 기록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 하지만, 현대 야구에서 기록 혹은 통계만큼 팀 승리에 기여하는 요인은 없다고 판단된다. 야구 자체를 즐기고, 열기를 느끼고, 경기장 분위기 만으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거기에 더해서 통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야구를 접하게 된다면, 그 또한 다른 재미를 느낄 것이라 생각이 된다.



타율		
1	김선빈	KIA 0.370 (OPS 17위 / 출루율 8위)
2	박건우	두산 0.366 (출루율 6위 / OPS 5위)
3	박민우	NC 0.363 (OPS 13위 / 출루율 2위)
4	나성범	NC 0.347 (OPS 6위 / 출루율 9위)
5	박용택	LG 0.344 (OPS 16위 / 출루율 5위)
출루율		
1	최형우	KIA 0.450
2	박민우	NC 0.441
3	김재환	두산 0.429
4	최 정	SK 0.427
5	박용택	LG 0.424
OPS		
1	최 정	SK 1.111
2	로사리오	한화 1.075
3	김재환	두산 1.032
4	최형우	KIA 1.062
5	박건우	두산 1.006

WAR			
1	김재환	두산	6.92 (타율 7위, 출루율 3위, OPS 3위)
2	최형우	KIA	6.82 (타율 6위, 출루율 1위, OPS 4위)
3	손아섭	롯데	5.58 (타율 9위, 출루율 7위, OPS 11위)
4	박건우	두산	5.26 (타율 2위, 출루율 6위, OPS 5위)
5	구자욱	삼성	4.84 (타율 23위, 출루율 18위, OPS 15위)
WAR			
1	최 정	SK	7.30 (타율 18위/출루율 4위/장타율 1위, OPS 1위)
2	김재환	두산	7.22
3	최형우	KIA	7.20
4	박건우	두산	7.04
5	로사리오	한화	5.75

WHIP : (볼넷 개수 + 안타 개수) ÷ 등판 이닝수
 Rel%
 WAR :
 선발 = ((90이닝 당 대체선수 대비 기대승률) / 9) * Inning
 구원 = (선발식) * ((1 + gmLI) / 2)

>> 지난 학회 소식들

2017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건·주관절 학회 내의
 여러 학술대회, 심포지엄, 연수강좌 소식들

- ▶ **2017 제5회 부산 건·주관절 연구회 심포지움**
 일시: 2017년 1월 14일 (토) 오후 12:20~18:30
 장소: 부산 해운대구 BEXCO (벡스코) 컨벤션 홀 2층 205호 APEC Hall
- ▶ **2017 대한스포츠의학회 워크샵
 – Shoulder and Knee Intensive Course**
 일시: 2017년 1월 22일 일요일
 장소: 삼성서울병원 임병원 B1층 강당
- ▶ **제2회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어깨 인공관절 치환술 카데바 워크샵**
 일시: 2017년 2월 4일(토)
 장소: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실 및 강의실
- ▶ **2017 Gachon shoulder meeting**
 일시: 2017년 2월 11일 토요일
 장소: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 컨벤션 다빈치홀
- ▶ **제 11차 경희 방콕 카데바 워크샵**
 Faculty: 이용걸 교수
 기간: 2017년 2월 16일~17일
- ▶ **제 25차 춘계 대한건·주관절학회 학술대회**
 일시: 2017년 3월 24일(금)
 장소: 양재 더케이 호텔
- ▶ **제 7회 어깨 관절의 날 행사**
 매년 3월의 마지막주를 어깨 관절의 주 지정
 어깨 관절의 날 선포 관련한 행사 3월 31일 목 개최
- ▶ **대한스포츠의학회 51차 춘계학술대회**
 일시: 2017년 3월 26일 일요일
 장소: 건국대학교병원 지하3층 대강당
- ▶ **2017년 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 제29차 춘계학술대회**
 일시: 2017년 4월 2일 일요일
 장소: 건국대학교병원 대강당 (지하3층)
- ▶ **2017대한건·주관절학회 호남·제주지회 –익산심포지엄–**
 일시: 2017년 4월 8일(토) Pm 1시부터
 장소: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4층 법당
- ▶ **2017 APKASS SUMMIT (In Pursuit of the State of the Art)**
 일시: 2017. 04. 28(금)~29(토)
 장소: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 ▶ **2017년 대한 운동계 줄기세포 재생의학회 제7회 춘계학술대회**
 일시: 2017년 5월 14일 일요일
 장소: 강남세브란스 병원 3층 대강당
- ▶ **제 10회 삼성 서울병원 shoulder & elbow symposium**
 일시: 2017년 5월 14일 (일)
 장소: 삼성서울병원 본관 지하 1층 대강당
- ▶ **제5회 관절경 수술 심포지엄**
 일시: 2017년 5월 21일(일)
 장소: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 및 소강당
- ▶ **2017년 대한정형외과연구학회 춘계 심포지엄 및
 대한 메디칼 3D프린팅학회**
 일시: 2017년 5월 27일 토요일
 장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 2층 이견홀
- ▶ **2017 SNU Orthopaedic Update (II):
 Shoulder Arthroplasty – Video and Debate Symposium**
 일시: 2017년 5월 28일(일) 08:30~18:20
 장소: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1층 임상 제1강의실
- ▶ **대한체외충격파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
 일시: 2017년 5월 28일 일요일
 장소: 홍은동 그랜드 힐튼호텔 4F 컨벤션 홀
- ▶ **2017년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회 제12차 춘계학술대회 및
 제15차 근골격계 초음파 워크샵**
 일시: 2017년 6월 18일 일요일
 장소: 대구 가톨릭의대 루가관 7층
- ▶ **2017 Asan Meniscus & Osteotomy Symposium**
 일시: 2017년 7월 2일 일요일
 장소: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
- ▶ **5th Asia Arthroscopy Congress**
 일시: 2017년 7월 7일~9일
 장소: Bali, indonesia
- ▶ **제7회 Shoulder Live Cafe**
 일시: 2017년 7월 22일 토요일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데레스관 3층 강당
- ▶ **2017 대한스포츠의학회 스포츠의학 연수강좌**
 일시: 2017년 8월 20일 일요일
 장소: 삼성서울병원 임병원 지하 1층 강당
- ▶ **2017 경희대 shoulder live surgery : Rescuing the shoulder**
 일시: 2017년 9월 2일 (토요일)
 장소: 경희대학교 종합강의동(청운관) B117 및 수술실
- ▶ **2017 진천선수촌 개촌기념 대한스포츠의학회 심포지엄**
 일시: 2017년 9월 16일 토요일
 장소: 충북 진천 선수촌 챔피언하우스 3층
- ▶ **2017년 제 30차 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 추계 학술대회 및
 제 15차 한일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합동 학술대회**
 일시: 2017년 9월 23일 토요일
 장소: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대강당
- ▶ **제 16차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회 근골격계 초음파 워크샵
 (Advanced course-상지)**
 일시: 2017년 9월 24일 일요일
 장소: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연구동 지하2층 화상강의실
- ▶ **제 37차 대한관절경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시: 2017년 10월 14일 토요일
 장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의과대학본관 2층 유광사홀 및 최덕경 강의실
- ▶ **대한관절경학회 제 8회 연수강좌**
 일시: 2017년 10월 15일 일요일
 장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의과대학본관 2층 유광사홀
- ▶ **2017 제43차 대한정형외과연구학회 학술대회**
 일시: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장소: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
- ▶ **2017년 제52차 대한스포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시: 2017년 10월 22일 일요일
 장소: 삼성서울병원 본관 지하 대강당
- ▶ **2017년 제8차 대한 건·주관절 학회 대전·충청지회 견관절 심포지움**
 일시: 2017년 10월 28일 토요일
 장소: 천안 단국대학교 병원 5층 대강당

>> 회원동정



연세사랑병원 김성재 회원

2017년 9월 7일-9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5회 아시아 관절경 학회(5th Asia Arthroscopy Congress (AAC))에서 History and future of AAC 의 제목으로 key note speech를 하셨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천용민 회원

지난 9월 7-9일까지 발리에서 개최된 5th Asia Arthroscopy Congress의 symposium session에 초청되어 "arthroscopic repair of massive rotator cuff tear" "subscapularis repair: in box vs. out of box" 에 대하여 강의를 하였습니다.

탄탄병원 김경천 회원

"김경천 탄탄정형외과"에서 "탄탄병원(대전시 탄방동)"으로 확장개원 (2017년 8월 17일)

포항 세명기독교병원 류인혁 회원

제 5판 Morrey's The Elbow and its disorders에 제가 발표한 학설이 인정받아 359 page 에 alternative mechanism으로 1/2 page 분량으로 소개

지난 9월 7-9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 5회 아시아 관절경 학술대회 (Asia Arthroscopy Congress)에 김성재 명예회장을 비롯하여 이용걸, 박진영, 유연식, 유재철, 전인호, 천용민 교수가 invited speaker로 초청되어 강의 및 좌장을 하였습니다.

천용민 교수는 board meeting에서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16년도 신입회원 명단

1078	김지훈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1114	공일규	목포한국병원	1150	김의석	가천대길병원
1079	이준구	빈센트 병원	1115	송시정	일산백병원	1151	이승엽	삼성서울병원
1080	김보선	조선대학교병원	1116	이성윤	이동튼튼정형외과	1152	이상현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1081	김동욱	서울제일병원	1117	정재욱	경북대병원	1153	김종익	성모월병원
1082	김진우	가천대길병원	1118	최장규	바로정형외과내과	1154	전종혁	가톨릭성빈센트병원
1083	이능기	대전보훈병원	1119	전민철	순천향대서울병원	1155	윤태현	포항1정형외과
1084	임정주	박진영내온정형외과	1120	김경일	가톨릭성빈센트병원	1156	김모중	삼성서울병원
1085	홍경호	박진영내온정형외과	1121	허주영	성베드로병원	1157	심승보	삼성서울병원
1086	조아름	전남대병원	1122	허주영	광주기독병원	1158	남동철	순병원
1087	류호동	박진영내온정형외과	1123	남주현	강동경희대병원	1159	강호원	울산H병원
1088	장형규	동산의료원	1124	김대현	네온정형외과	1160	이준열	단국대병원
1089	오현근	의정부세원병원	1125	서범호	네온정형외과	1161	김영석	부천오정본병원
1090	김형태	오산한국병원	1126	이승진	한림동탄성심병원	1162	정용진	진주우리병원
1091	이창화	경북대병원	1127	이종수	네온정형외과	1163	김상열	이대목동병원
1092	봉선태	마디병원	1128	임성준	서울아산병원	1164	박근형	국군수도병원
1093	강민구	성바오로병원	1129	박주현	분당서울대병원	1165	송한익	서울백병원
1094	정동석	성바오로병원	1130	이광진	분당서울대병원	1166	이동현	부산힘찬병원
1095	임승완	영남대병원	1131	이황용	강동경희대병원	1167	김주현	세바른병원
1096	박용	천안충무병원	1132	김태훈	고신대복음병원	1168	성광영	서울성모병원
1097	송창근	홍성의료원	1133	정광영	더편한연합정형외과	1169	강형진	분당바른세상병원
1098	이동우	세브란스기독교병원	1134	노경한	삼성서울병원	1170	현환섭	이대목동병원
1099	김세진	성가롤로병원	1135	홍성우	삼성서울병원	1171	라인후	울공은병원
1100	이원재	서울아산병원	1136	이성현	원광대병원	1172	도정훈	박진영병원
1101	현낙민	대전성모병원	1137	양성석	CM충무병원	1173	오수훈	보광병원
1102	주윤석	서울아산병원	1138	박승민	포항구암시티병원	1174	남욱	부영병원
1103	김중호	서울성모병원	1139	이창민	화명일신기독병원	1175	박강희	항남정형외과
1104	최순신	선린병원	1140	서보경	서울보라매병원	1176	추한호	남양주 원병원
1105	송광연	서울성모병원	1141	이종혁	신천연한병원	1177	오현석	손발척척정형외과
1106	김진홍	서울성모병원	1142	최민석	과산정형외과	1178	정현태	코뿔소정형외과
1107	선동혁	서울성모병원	1143	이건우	서화정형외과	1179	김도열	인천성모병원
1108	박성렬	부천하이병원	1144	우주형	강서나누리병원	1180	박명주	박진영내온정형외과
1109	김민수	대구가톨릭대병원	1145	이철	고든병원	1181	표수호	익산병원
1110	이재민	서울대보라매병원	1146	황명희	강남베드로병원	1182	윤태연	해운대백병원
1111	임재우	익산나은병원	1147	김지수	프라임병원			
1112	박진현	계명대동산의료원	1148	박철	경기광주탄탄병원			
1113	이정훈	이동튼튼정형외과	1149	권재영	성모월병원			

